

우울증에 대한 기독교상담의 연구 동향: 국내 연구를 중심으로

권혜령* 석은주** 김숙경***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기독교상담에서 우울증에 대한 연구의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연구의 방향을 전망해보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울증에 대한 국내 기독교상담 연구자들이 발표한 학술지 및 학위논문 216편을 분석하였다. 분석 항목으로는 크게 연구 주제, 연구 대상, 연구 방법, 이론 및 치료 접근의 영역으로 나누어 그 특징과 경향을 분석하였다. 특별히 우울증에 초점을 맞춘 점을 감안하되, 일반 상담과 구별되는 기독교상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역적 방법과 귀납적인 방법을 함께 사용하여 범주를 유목화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 주제의 경우 개관연구가, 연구 대상의 경우 연령 및 성별을 특정하지 않은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개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았다. 연구 방법은 이론 연구가 가장 많았고, 이론적 접근으로는 학제간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치료적 접근으로는 기독교(목회) 상담과 통합 및 절충주의 접근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내용적으로는 이론 및 치료적 접근 모두에서 심리상담학적 관점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토대로 우울증에 대한 기독교상담의 추후 연구의 과제와 방향에 대해 제안하였다. 본 연구가 향후 우울증에 대한 기독교상담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우울증, 기독교상담, 상담 연구 동향, 내용 분석, 기독교상담의 정체성

* 열린심리상담연구소 연구원, 제1저자

** 열린심리상담연구소 연구원, 참여저자

*** 열린심리상담연구소 연구원, 참여저자

I. 여는 글

한국의 기독교상담은 연세대학교 내 ‘문의학’ 강의가 열린 1951년을 시작점으로 하여(권수영 외, 2007; 손운산, 2011; 유명권, 2010; 장미혜, 정연득, 2017)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현재 ‘정체성 확립기’(유상희, 2019: 247) 또는 ‘확산기’(홍인중, 2012: 82) 등의 시기로 여겨지고 있다. 그동안 기독교상담 연구 동향 논의가 전반적으로 역사를 회고하고 발전 방향과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기독교상담의 과거, 현재 및 미래에 대한 전망을 다루어 온 것에 비해 특정 주제에 대한 연구 경향성을 살펴본 연구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이에 본 논문은 현시점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우울증에 대한 기독교상담의 연구의 경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별히 우울증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최근의 팬데믹(pandemic)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2019년 12월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여 휩쓴 지 4년여가 되어가는 현재 우울증이 크게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코로나를 예상하지 못했던 2009년에 이미 WHO는 2020년 즈음 우울증이 세계적으로 사망과 질병의 중요한 원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던 한 바 있었다(최윤형, 2010; 최정현, 2012). 팬데믹 시기에 ‘코로나 블루’라는 용어가 생길 정도로 우울감과 우울증이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제가 되었고, 실제로 2020년의 우울증 유병률이 5.2%로 팬데믹 이전이었던 2018년의 4.3%에 비해 유의미하게 증가했을 뿐 아니라 중증 우울증 유병률은 2배 증가하였다는 보고가 있다(이응준, 김승재, 2023). 2021년 통계로 국내 우울증 환자 수가 93만 3,481명이었는데, 2017년 대비 35.1% 증가한 수치라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3).

코로나-19 여파가 잦아들고 일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한 이후에도 이러한 영향이 흔적을 남겨 정신건강과 관련된 사회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다. 코로나 이후 자살률이 증가했는데 이는 우울감 증가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된다(보건복지부, 2022; 김성연 외, 2023). 우울증은 자살 사고, 자살 계획, 자살 시도 모두에서 단일 정신장애로는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여타의 정신장애와의 동반 이환율이 높아 공존 병리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국가통계포털, 2022).

기독교상담에서 우울증에 대한 연구 전반을 살펴보면, 우울증 유병률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조준희, 2004), 기독교인의 우울증은 비기독교인의 우울증과 유사점과 차이점을 가지는데, 특히 신앙으로 인한 독특한 특징들을 가진다고 보고된 바 있다(김영희, 2007). 또한 우울증이 자살로 이어지

는 중요한 위험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도 기독교상담의 관심과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이창진, 오은주, 2015; 최지영, 2012), 교회 안에서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돌보는 방편으로서 기독교상담의 원리와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지적되어 왔다(김준, 2014; 여한구, 2014). 이처럼 우울증 이환율이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는 점, 자살과의 관련성, 기독교인의 우울증의 독특성, 교회 공동체적 돌봄의 필요 등을 고려할 때 학문적이고 실천적인 관심을 더욱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교회 안팎으로 우울증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의 필요가 절실한 시점에 기독교상담에 있어 우울증 상담은 그동안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오고 있었는지 기독교 상담 분야에서 활동하는 연구자들의 연구 경향성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기독교상담 전반에 걸쳐서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전망 및 과제를 생각해보는 작업은 지금까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첫째는 기독교(목회) 상담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분석하여 그 의미와 기독교상담의 정체성 및 방향성을 고찰하고 향후 과제를 생각해보는 방식과(권수영 외, 2007; 박근원, 1997) 두 번째는 일정 기간의 연구물들을 내용과 빈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향성을 파악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여 발전을 위한 제안을 하는 방식이다(유상희, 2019; 장미혜, 정연득, 2017). 이러한 연구는 특히 일반상담과 구별되는 기독교상담의 독특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독교상담이 성경적 인간 이해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신학과 심리학의 '대화'가 필요하고 이와 관련하여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져 왔으며 신학적 입장의 차이로 인해 기독교상담의 이론과 실체가 매우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것이 이론적이고 학문적 정립을 위한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에 대한 것이라면, 기독교상담의 역사 및 연구 경향에 대한 고찰은 강의실과 상담 현장, 교회와 세상, 목회자의 목회 현장과 평신도 상담자의 상담 사역에 대해 고민함으로써 실제적이고 실천적으로 현장을 반영하는 연구라고 할 수 있겠다.

그중에서도 상담의 실제와 관련하여 경향성 파악과 논의를 위해서는 두 번째 방식의 연구, 즉 연구 경향성 탐색이 보다 현장의 경험을 해석하는 데 적합하다고 생각되는데, 상담의 실천에 대한 현상적 분석과 이해를 통해 개념을 정립함으로써 보다 실제적인 경험 및 현장의 요구를 담아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박경애, 백지은, 2017). 기독교상담의 경우 이런 의미의 동향 연구는 지금까지 5편이 확인되며(김성희, 2002; 유상희, 2019; 유영권, 2010; 이정숙, 2010; 장미혜, 정연득, 2017) 특정 주제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는 사별을 경험한 이에 대한 상담 연구 한 편만이 확인되어(차유림,

2016), 특정 주제에 대한 연구 경향 탐색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독교상담의 전반적 연구 경향에 대한 탐색에서 더 나아가 특정 주제인 우울증에 초점을 맞추어 지금까지 기독교상담에서 우울증에 대해 무엇을, 누구를, 어떻게, 그리고 어떤 학문적, 임상적 방향성을 가지고 연구했는지 살펴보는 것이 의미있다고 보고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상담에서 우울증에 대한 연구의 주제별 경향은 어떠한가?

둘째, 기독교상담에서 우울증에 대한 연구의 대상별 경향은 어떠한가?

셋째, 기독교상담에서 우울증에 대한 연구의 연구방법의 경향은 어떠한가?

넷째, 기독교상담에서 우울증에 대한 이론 및 치료적 접근의 경향은 어떠한가?

이를 통해 우울증에 대한 기독교상담의 동향과 특징을 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탐구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II. 펴는 글

1. 기독교상담 분야에서의 연구 경향에 대한 선행연구 비교 고찰

우울증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기존의 기독교상담 연구경향에 대한 탐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지금까지 특정 주제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평정 항목을 정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연구 주제, 연구 대상, 연구 방법, 접근방식을 위주로 분석한 기독교상담 경향성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정리해 보았다.

〈표 1〉 한국 기독교상담 동향에 대한 선행연구

저자	김성희	이정숙	장미혜, 정연득	유상희
연도	2002	2010	2017	2019
기간	1990-2001	2002-2009	2001-2008/ 2009-2016	2010-2018
대상	석사논문	학위논문 (석사/박사)	목회와 상담	한국기독교상담학회 지/목회와 상담
수	317	672(619/53)	250	467(288/179)

연구 주제	<p>[11개 범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신건강 및 성격 2) 비행 3) 가정 문제 4) 위기 문제 5) 대인관계 문제 6) 성장 7) 상담 교육 8) 진로 및 진학/학업 9) 직업 적응 10) 성 11) 기타 	<p>[11개 범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신건강 및 성격 2) 비행 3) 가정 문제 4) 위기 문제 5) 대인관계 문제 6) 성장 7) 상담 교육 8) 진로 및 진학/학업 9) 직업 적응 10) 성 11) 기타 	<p>[17개 범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회상담 2) 정신역동 3) 영성 4) 종교경험 5) 가족 6) 트라우마, 폭력 7) 중독 8) 한국문화 9) 심리치료 10) 위기 상담 11) 치료 12) 성 13) 상담 기술 14) 용서 15) 경제 16) 다문화사회 17) 기타 	<p>[10개 범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독교(목회) 상담 2) 상담과 심리치료 3) 종교경험과 영성 4) 가족 5) 위기 상담 6) 폭력과 트라우마 7) 중독 8) 한국문화 9) 다문화 10) 성
연구 대상	<p>[12개 범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동 2) 청소년 3) 대학생/대학원생 4) 성인 노년 5) 성인 중년 6) 성인 여성 7) 성인 일반 8) 심리적문제집단 9) 신체적문제/재활 중 집단 10) 가족/자녀/부부 11) 상담자 12) 기타 	<p>[12개 범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동 2) 청소년 3) 대학생/대학원생 4) 성인 노년 5) 성인 중년 6) 성인 여성 7) 성인 일반 8) 심리적문제집단 9) 신체적문제/재활 중 집단 10) 가족/자녀/부부 11) 상담자 12) 기타 	<p>[13개 범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회상담 2) 인간발달단계 (아동, 청소년, 대학생, 중년, 노년) 3) 신앙공동체 4) 상담 5) 가족 6) 신앙자원 7) 한국사회/문화 8) 여성 9) 남성 10) 정신병리 11) 관계 12) 인물 13) 기타 	<p>[11개 범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회상담 2) 인간발달단계 (아동, 청소년, 대학생, 중년, 노년) 3) 신앙공동체 4) 상담 및 심리치료 5) 가족 6) 신앙자원 7) 사회와 문화 8) 여성 9) 남성 10) 정신/신체질환 11) 기타
연구 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이론연구 2)이론+사례제시 3)이론+조사연구 4)조사연구 5)실증연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이론연구 2)이론+사례연구 3)이론+조사연구 4)실험연구 5)기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학제간 연구 2)융합 연구방법론 3)질적연구 4)양적연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질적연구 2)양적연구 3)기타(혼합연구, 연구동향 등)

접근 방식	통합적	분류하지 않음	심리학적 접근	정신분석학	학제간 연구	
				일반심리학		
				개인심리치료		
	기독교전통		신학적 접근	심리역사학	기독교회 신학	
				여성주의 목회상담	여성주의 목회상담	
	일반적		신학적 접근	성서, 신학적 접근	정신역동 접근	
				해석학	심리학 적 접근	심리학 및 심리치료
				가족체계이론		
	기타		신학적 접근	관계문화이론	가족체계이론	
				의식이론		
기타		기타				

위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볼 때 몇 가지 제한점이 발견된다. 첫째, 각각 소속 학회지의 논문만을 분석하거나(장미혜, 정연득, 2017), 학위논문만을 분석하거나(김성희, 2002; 이정숙, 2010),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의 연구물들을 분석하거나(유상희, 2019), 연구 시점이 오래되어 최신 연구 경향을 반영하기 어렵거나 하여 기독교상담 전반의 경향을 파악하기에 부족하다. 둘째, 연구 주제 및 연구 대상의 분석은 그 범주가 구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구 주제의 범주로 분류된 항목과 연구 대상의 범주로 분류된 항목이 다수가 중복되어 ‘주제’와 ‘대상’이 차별화되지 않는 모호함이 있다(유상희, 2019; 장미혜, 정연득, 2017). 셋째, 일반적으로 내용분석 연구에서 따르는 평정 절차에 대한 구체적 제시가 없어 분석의 타당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넷째, 연구 접근방식의 분류에 있어서 ‘신학적’ 접근과 ‘심리학적’ 접근, ‘통합(절충)적’ 접근 또는 ‘학제간 연구’의 구분은 비슷하지만 그 외 구분에 있어서 연구자들마다 큰 차이를 보이는 등, 후속 연구에 참조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국내 연구자들의 논문을 분석하는 데 있어 연구 경향을 반영하기에 보다 적합한 분류기준을 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기존 연구들을 참고하되 기독교상담의 독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분류기준을 정하고 이를 토대로 종합적인 분석과 고찰을 통한 논의를 전개해 보고자 한다.

2. 분석 대상 및 분석 과정

1) 분석 대상

본 연구는 기독교상담 분야에서 활동하는 국내 연구자들의 연구물을 분석하되 2000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의 기독교상담 관련 학술지 논문들과 기독교대학 목회상담 및 기독교상담 관련 전공 학위논문들 중 우울증 상담에 대한 216편의 연구의 경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선정을 위해 국내 학술 DB 중 한국교육학술정보원(<http://www.riss.kr>), 한국학술정보(<http://kiss.kstudy.com>), 누리미디어(<http://www.dbpia.co.kr>), 학술교육원(<http://www.earticle.net>) 및 국회전자도서관(<http://dl.nanet.go.kr>)에서 '우울증', '우울', '기독교상담', '목회상담'을 키워드로 하였다. 검색 결과 238편이 확인되었고, 그중 우울증과 직접적이기보다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연구 6편을 제외한 232편 중에서 원문보기가 가능하거나 소장 도서관을 통해 수집이 가능한 220편을 분석한 결과 기독교상담과 관련된 언급이 전혀 발견되지 않아 연구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4편을 제외한 216편을 최종 분석하였다.

학술지로는 KCI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창간 연도순으로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1999년 창간, 한국기독교상담·심리치료학회), '목회와 상담'(2001년 창간, 한국목회상담학회), '복음과 상담'(2003년 창간,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가 대표적 기독교상담 학술지로 포함되었고(36편), 그 외 '신학과 실천', '복음과 실천신학' 등을 비롯한 신학회 발간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을 포함하여 53편이 분석되었다. 학위논문으로는 국내 36개 대학 석사 및 박사 학위 청구논문 163편(석사 141편, 박사 22편)이 포함되었고, 학위논문을 수정, 축약하여 학술지에 게재한 경우는 학술지 논문을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논문은 초록만으로는 분석 항목들을 확인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 원문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분석하였다.

2) 평정자 및 평정 절차

논문의 평정은 기독교상담 현장에서의 상담 경력이 평균 10년 된 자들로서 기독교상담 관련 자격증을 갖춘 5명이 시행하였다. 기독교대학 기독교상담학 전공 석사학위 소지자 3명과 교육대학 교육상담학 전공 석사학위 소지자 1명, 기독교상담학 전공 5년차 박사과정생 1명이 참여하였다.

평정 및 평가는 ① 평정 기준안 수정 및 보완, ② 평정자 교육, ③ 평정 실시, ④

교차 검토와 평정 확정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일반상담 분야의 선행연구(김계원 외, 2011; 박경애, 백지은, 2017; 이동혁, 유성경, 2000; 조남정 외, 2010; 조성호, 2003) 및 기독교상담 분야의 선행연구(김성희, 2002; 유상희, 2019; 이정숙, 2010; 장미혜, 정연득, 2017)들의 평정 항목들을 참고하여 기준을 마련하여 교육하고 평정을 실시하되 추가적으로 발견되는 부분들을 유목화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유목화 과정과 평정 항목들을 기독교상담학 교수 1명이 감수하였다. 석사학위자 4명을 2개 조로 나누어 1차 평정을 실시한 뒤 교차 검토하였으며, 교차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2차 평정을 실시하고, 박사과정생이 평정한 범주를 비교하고 3차 평정 및 토의과정을 거쳐 확정하였다.

3) 평정 항목과 분류 과정

앞서 살펴보았듯이 기독교상담의 연구 동향을 분석한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하는 연구 주제, 연구 대상, 연구 방법, 이론적 및 치료적 접근에 대한 범주들은 연구자들마다 다를뿐더러 일반상담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평정 항목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 상담학 분야에서 연구 주제 및 대상의 분류는 Buboltz, Miller, & Williams(1999)를 참조하여 이동혁과 유성경(2000)이 시행한 분류를 다수의 연구자들이 차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김계원 외, 2011; 조남정 외, 2010; 조성호, 2003; 박경애, 백지은, 2017). 일반 상담 연구들에서 범주 유목화는 이런 식으로 기존의 연구를 참조한 연역적 방법이 주를 이루고 한 두 가지 정도의 범주를 추가, 보완하는 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질적연구 동향의 경우 질적연구의 특징상 귀납적 방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권경인, 양정연, 201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반상담 분야에서 여러 연구자들이 공통으로 채택한 분류기준을 참고하되, 기독교상담 분야이기 때문에 가지는 독특성을 반영한 유목화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연역적 방법과 귀납적 방법을 함께 사용한 것으로, 먼저 학술지 논문 50편을 대상으로 기존 분류 항목대로 분석하면서 기존 연구에서 제시하는 항목에 포함시킬 수 없는 분류기준들을 새로 추가하였고, 특히 이론 및 치료 접근 분석에 있어서 기독교상담의 통합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많은 논의를 거쳐 항목을 정하였다.

(1) 연구 주제

연구 주제는 일반상담 분야의 분류 항목을 1차적으로 적용한 ‘일반 주제’와, 우울증 분야의 연구임을 반영한 ‘특정 주제’를 별도로 분류하여 2개의 큰 범주로 분류하였다.

일반적 주제는 ① 개관연구, ② 성격특성 및 적응 연구, ③ 상담 과정 및 성과연구,

④ 이론개발 연구 ⑤ 프로그램 개발 연구, ⑥ 검사 및 도구 개발 연구, ⑦ 학습/학업/진로 관련 연구, ⑧ 기타로 분류하였다.¹⁾ 통상적으로 '상담 성과연구', '상담 과정 연구', '상담 과정 및 성과연구'를 구분하여 분류하나, 분석 논문들에서 상담 과정이나 성과만을 별개로 연구하기보다는 우울증에 대한 상담과정과 성과를 함께 다룬 연구들이 대부분이어서 '상담 과정 및 성과연구'에 포함시켰다.

특정 주제는 내용분석을 통해 귀납적으로 범주를 정하였다. ① 치료기법 및 방법론, ② 원인 및 영향 요인 연구, ③ 목회적(영혼) 돌봄, ④ 영성 및 종교성, ⑤ 자기, 자존감, 정체성, ⑥ 성(gender), ⑦ 상실/애도, ⑧ 자살, ⑨ 중독, ⑩ 용서, ⑪ 기타로 분류하였다.²⁾

(2)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은 발달단계별 및 성별 대상 분류를 시행하고, 기독교상담 분야에서 두드러지는 공동체별 분류 및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대상의 구분이 필요하여 총 4개의 대분류 범주를 나누었다.

첫째는 발달단계별 분류로서 통상적으로 구분되는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20-35세 사이의 교회 청년부), 중년기, 노년기(65세이상)와 함께 대학생(대학원생)이 포함되었고, 연령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성인기', 연령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경우 '비특정', 위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특정 연령의 대상을 연구한 경우 '기타 특정 연령'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군인(일반병사)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기존의 동향 연구에서 별도로 구분한 것을 참고하여 '군인' 범주로 하였다.

1) 각 항목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① 개관연구: 특정 주제 관련된 기존 연구들을 정리하고 분석, 종합한 연구, ② 성격특성 및 적응 연구: 성격특성이나 발달 및 적응 등의 주제를 다룬 연구로 스트레스, 외상후성장, 회복탄력성 관련 탐구를 포함함, ③ 상담과정 및 성과연구: 상담이 직접적인 효과 및 상담과정의 어떤 요소가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연구, ④ 이론개발 연구: 어떤 이론을 새롭게 개발하기 위한 연구로 기존 연구의 종합을 넘어 새로운 개념을 제시, 제안한 연구, ⑤ 프로그램 개발 연구: 개인 또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 ⑥ 검사 및 도구 개발 연구: 검사 또는 양적 측정을 위한 도구를 개발하는 연구, ⑦ 학습/학업/진로 관련 연구: 학업이나 학습에 미치는 영향 및 진로와 적성에 대한 연구, ⑧ 기타 : 이상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

2) 각 항목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① 치료기법 및 방법론: 우울증에 대한 치료기법과 방법론을 다룬 연구, ② 원인 및 영향요인 연구: 우울증의 원인 및 발생기전, 문제 및 현상을 다룬 연구, ③ 목회적(영혼)돌봄: 공동체적 돌봄과 영혼돌봄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 다문화와 다양성 주제를 포함함, ④ 영성 및 종교성: 영적/종교적 경험, 영성, 영적 의미, 종교성, 신앙자원 등을 다룬 연구, ⑤ 자기, 자존감, 정체성: 우울증의 병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여겨지는 자기(self)와 관련된 연구, ⑥ 성(gender):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성(gender)'을 다룬 연구, ⑦ 상실/애도: 상실의 슬픔이 치유되지 못해 발생한 우울증을 다룬 연구, ⑧ 자살: 우울증이 주요위험요인이 되는 자살을 다룬 연구, ⑨ 중독: 우울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독을 다룬 연구, ⑩ 용서: 해결되지 않은 관계적 상처로 인한 우울증과 관련된 연구, ⑪ 기타: 이상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

둘째는 성별 분류로서 여성의 경우 연령을 특정하지 않은 '(연령) 비특정 여성', '여자 청소년', '여대생', '기혼여성', 산후우울증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산후 여성', '중년여성', '노년여성', 마지막으로 위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특정 연령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특정연령 여성'으로 분류하였다. 남성의 경우 연령을 특정하지 않은 '(연령) 비특정 남성', '중년남성', '기타 특정연령 남성'으로 분류하였고, 성별을 구분하지 않은 경우 '(성별) 비특정'으로 분류하였다.

발달단계별 분류 및 성별 분류에서 연구 대상의 연령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암묵적으로 성인을 염두에 두고 연구한 것으로 추정되나 연구자가 연구 대상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기타'로 분류하였다. 이는 '여성' 또는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동일하다.

셋째, 공동체를 기준으로 하는 분류로서, 부부, 가족, 부모/자녀를 대상으로 하거나 조손가정,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가정 공동체'로, 교회공동체나 목회자나 선교사 및 그 가족을 포함하는 경우 '신앙공동체'로 분류하고, 성경 인물이나 교회사적 인물을 대상으로 한 경우 '역사적 공동체'로, 공동체와 무관하게 개인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개인'으로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집단상담이나 프로그램 연구를 위해 구성된 공동체는 일시적으로 모였다가 연구 종결과 함께 흩어지게 되는 '일시적 공동체'로 보았다. 단, 한 교회 안에서 집단을 구성한 경우는 신앙공동체로 분류하였다.

넷째, 종교별 대상 분류는 기독교 신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기독교', 기독교 신자와 비기독교신자의 비교연구일 경우 '기독교/비기독교 비교', 종교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비특정'으로 분류하였다.

(3) 연구 방법

기독교상담의 연구 경향성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연구 방법 구분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 1). 이론연구와 함께 사례제시나 조사연구를 실시한 경우를 별도로 구분하는 연구자가 있는 반면(김성희, 2002; 이정숙, 2010), 양적연구와 질적연구 및 혼합연구 등의 분류를 채택한 연구자도 있다(유상희, 2019). 본 연구에서는 이론연구나 양적연구와 함께 사례를 제시하였으나 질적연구 방법론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사례제시인 연구들을 별도의 항목으로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아 해당 항목을 포함하였다. 연구자 자신이 '질적연구'라고 제시했지만, 질적연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내용적으로도 발견되지 않는 경우도 이에 포함되었다.

경험연구의 분석 방법 항목은 일반상담 연구 동향 논문들(김계원 외, 2011; 조남정, 2010; 조성호, 2003)을 참조하여 양적연구의 경우 ① 빈도분석, ② 변량분석계열(t-검

정, ANOVA 또는 MANOVA를 활용한 변량분석 포함), ③ 회귀분석 계열(상관분석, 회귀분석), ④ 요인 분석, ⑤ 다변인간 인과관계분석, ⑥ 비모수적 분석으로 분류하였으며, 여러 가지 분석방법을 적용한 연구들의 경우 중복 합산하였다. 질적연구 자료분석은 ① 현상학적 분석, ② 근거이론적 분석, ③ 사례분석, ④ 합의적 분석(CQR), ⑤ 위의 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내러티브 탐구, 생애사, 문화기술지 등) ⑥ 여러가지 분석 방법(두 가지 이상의 분석 방법을 적용한 경우) 으로 분류하였다.

(4) 이론 및 치료적 접근

일반 상담학에서 상담이론을 분석 틀로 적용한 연구는 정신역동, 행동주의, 인본주의, 인지심리학의 범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것이 있으나 그밖에 찾아보기 어렵다(노안영, 1994). 최근 10여 년간 인간중심 접근(주은선, 김혜원, 2013) 또는 수용전념치료(심윤경, 2016)같은 세부적인 이론이나 치료 접근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발표되었으나, 전체적인 경향 분석은 확인되지 않는다.

기독교상담의 정체성과 독특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주제로서 일반상담 및 심리치료와의 통합의 문제가 국내외 많은 학자들에 의해 고민하고 논의되었던 바(강연정, 2019; 안경승, 2012; 최은영, 2000; Johnson, 2012; Jones & Butman, 2009), 본 연구에서는 이런 특징을 반영하여 이론 및 치료 접근의 내용분석을 시도하였다. 처음에는 기존연구의 분석을 참조하여 분류하는 시도를 하였으나(유상희, 2019; 장미혜, 정연득, 2017), 이론적인 접근만 이루어지고 치료적 차원에 대한 논의가 발견되지 않는 연구들이 많고, 이론적 접근과 치료적 접근에서 통합의 적용이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는 등 일괄적으로 구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이론 및 치료 접근방법을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론적 접근방법을 크게 신학과 심리학 및 기타 학문과의 통합적 관점에서 연구한 '학제간 연구', 신학과 성서 중심의 관점에서 연구한 '신학적 연구', 일반 심리학적 관점에 초점을 맞춘 '심리상담학적 연구', 위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타'의 4개 범주로 분류하였다.

첫째, '학제간 연구'의 경우 그중에서도 좀 더 초점을 맞춘 경향성을 토대로 상세 분류 항목을 정하였다. 심리학, 신학의 통합적 연구이면서 신학적 이해, 성경적 이해에 초점을 둔 경우 '신학-성서 중심' 접근, 심리학적 이해에 초점을 둔 경우 '심리학 중심' 접근, 신학과 심리학적 이해에 철학 등 여타 학문이 추가된 경우 '기타'로 분류하였다. 영성 및 종교성 관련 논의를 심리학 차원에서 논의한 경우 '심리학 중심' 접근에 포함되었다.

둘째, '신학적 연구'의 상세 분류에는 성경적 이해와 원리 및 방법론을 추구하는 '성서-신학적' 접근, 영성 신학, 하나님 이미지, 목회적 영혼 돌봄 등 실천 신학적 논의들에 초점을 맞춘 '목회신학적' 접근, 여성주의 목회상담학적 이해와 치료에 초점을 맞춘 '여성주의 목회신학적' 접근이 포함되었다. 관계문화이론 또한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셋째, '심리상담학적' 연구의 상세 분류는 심리상담 이론 및 치료 접근들을 큰 범주로 나누는 계열별로 구분하였다. 고전적 정신분석, 분석심리학/정신역동, 대상관계, 애착이론, 자기심리학을 포함하는 '정신분석 계열', 인지행동 치료와 수용전념치료를 포함하는 '인지행동 계열', 긍정심리학, 의미요법, 실존주의, 철학상담, 이야기 치료를 포함하는 '인본주의 계열', 독서, 영화, 미술, 음악 등 매체를 통한 치료적 접근에 초점을 맞춘 '경험주의적' 접근, 가족치료의 '가족체계이론'으로 구분하였다.

넷째, 그밖에 위에 해당하지 않는 심리상담학적 접근 분류를 '기타'로 구분하였다.

치료적 접근은 크게 5개의 범주로 나누었다.

첫째, 기독교상담의 방법론으로서 구체적인 상담 과정이 명시된 치료기법들이 '기독교(목회)상담 방법론'으로 분류되었고, 여기에는 성경적 상담, 여성주의 목회상담, 영성지도/영성훈련, 진리요법, 인격요법, 성장상담 및 기타 항목이 포함되었다.

둘째, 신학과 심리학의 방법론의 통합 또는 절충을 지향하는 '통합 및 절충주의 방법론'의 경우 '정신분석 계열', '인지행동치료', '경험주의', '실존주의', '긍정심리학', '이야기치료/상담', '가족치료', 그 외 '기타'로 분류하였다.

셋째, 신학적, 성서적 접근 없이 심리상담학적 접근에만 초점을 맞춘 경우 '심리상담학적' 방법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정신분석', '인지행동치료', '긍정심리학', '가족치료', 그 외 '기타'로 분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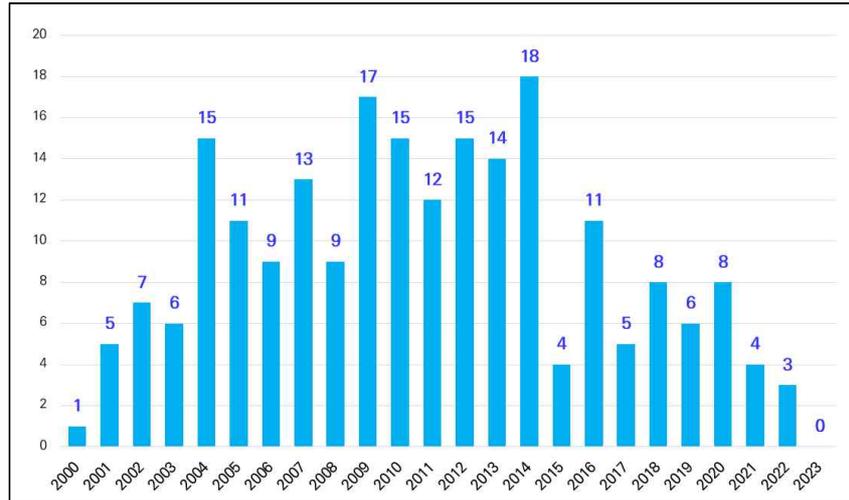
넷째, 이상의 분류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경우도 있어 대분류 중 '기타'로 분류하였다.

다섯째, 이론적 접근만 다루어지고 치료방법론에 대한 제시가 없는 연구는 '해당 없음'으로 분류하였다.

3. 분석 결과 및 논의

분석 결과, 기독교상담에서 우울증에 대한 연구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활발하게 연구되었던 시기는 2004년부터 2016년까지로 이 기간 동안 2015년(4편)을 제외하고는 9편에서 18편까지 발표되었다. 그에 비

해 최근 몇 년 동안은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1).



(그림 1) 연도별 논문 현황

연구주제, 연구대상, 연구방법, 이론 및 치료 접근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구 주제 분석 결과

(1) 연구 주제 : 일반

우울증에 대한 기독교상담의 일반적인 연구 주제를 분석해 보면, 개관연구가 40.28%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성격특성 및 적응 연구가 25.46%, 상담 과정 및 성과연구 16.67%, 이론개발 연구 7.87%, 프로그램 개발 연구 7.87%, 학습/학업/진로 관련 연구가 0.46%, 위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1.39%로 분류되었으며, 검사 및 도구 개발 연구는 확인되지 않았다(그림 2).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개관연구의(40.28%) 연도별 경향을 살펴보면 전체 분석 기간을 반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2000년-2011년까지의 개관연구가 58편이었고 2012년-2023년까지가 29편이어서 전반 12년간이 후반 12년간에 비해 두 배 정도 많음을 알 수 있다. 개관연구는 어떤 한 가지 주제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을 정리하고 분석하며 종합한 연구로서, 이를 통해 기독교상담의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초기과업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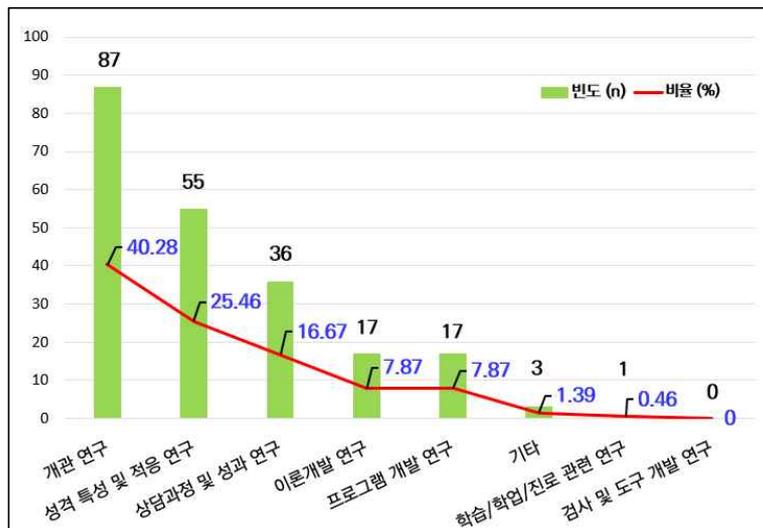
두 번째 많은 연구 주제로 나타난 성격특성 및 적응 연구는(25.46%) 특정 주제 분류 중 원인 및 영향 요인 연구(20.37%)와 가장 많이 연결되는 범주에 해당되며 이는 특정 주제 연구 중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과도 일치한다. 성격특성 및 적

응 연구 55편의 특정 주제 분류를 확인하면 원인 및 영향 요인 32편, 영성 및 종교성 관련 연구 11편, 목회적(영혼) 돌봄 4편, 자기, 중독, 자살 주제가 각각 2편, 상실/애도 및 치료기법/방법론 주제가 각각 1편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나타난 연구 주제는 상담 과정 및 성과연구(16.67%)로 36편 중 33편이 특정 주제 분류상 치료기법 및 방법론에 대한 연구였고 자기(self) 주제가 2편, 성(gender) 주제가 1편이었다.

이론 개발과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합하면 15.74%로 우울증과 관련하여 새로운 이론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검사 및 도구 개발 연구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기독교상담 전반이 아닌 우울증에 국한시킨 연구이기 때문일 수 있겠으나, 기독교인의 영적 특성이 반영된 우울증 관련 검사나 측정 도구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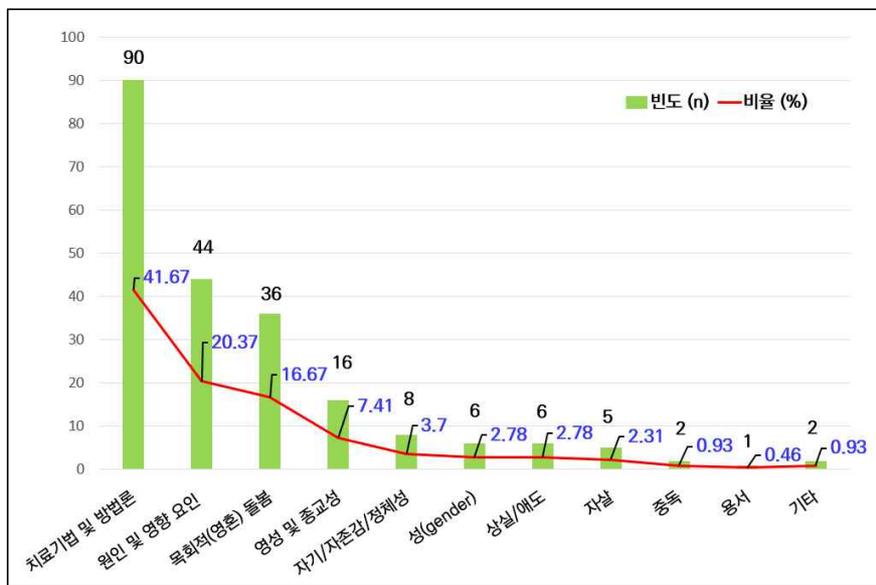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학습/학업/진로 관련 연구가 0.46%(1편)로 나타났는데, 일반상담 분야에서 우울증과 진로의 관련성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큰 것을 고려할 때 기독교상담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청소년 및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로와 우울의 관련성에 미치는 변인들 중 자기효능감(석민경, 조한익, 2017), 사회적 지지(오은경, 2014), 속박감(이운주, 최용용, 2018) 등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양적연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반영하여 우울증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진로에 대한 측면을 중요한 치료적 자원으로 고려하여 개입할 필요가 있겠다.



(그림 2) 연구주제: 일반 분석 결과

(2) 연구 주제 : 특정

특정 주제로 분류했을 때 치료기법 및 방법론을 다룬 연구가 41.67%로 가장 많았으며, 원인 및 영향 요인 20.37%, 목회적(영혼) 돌봄 16.67%, 영성 및 종교성 관련 연구 7.41%, 자기/자존감/정체성 관련 연구 3.7%, 성(gender) 주제를 다룬 연구 2.78%, 상실/애도 관련 연구 2.78%, 자살 관련 연구 2.31%, 중독 관련 연구 0.93%, 용서 관련 연구 0.46%, 기타 0.93%으로 확인되었다(그림 3).



(그림 3) 연구주제: 특정 분석 결과

치료기법 및 방법론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41.67%), 우울증에 대한 치료적 접근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적 주제 분류로는 개관연구가 35편으로 가장 많았고, 상담 과정 및 성과연구가 34편으로 비슷했다. 그다음으로 프로그램 개발이 12편, 이론개발 8편, 성격특성 및 적응 관련 연구가 1편이었다. 그중 상담 과정과 성과연구 34편 중 대부분이 이론과 실제 사례를 함께 제시한 연구이고(26편), 양적연구와 사례제시를 병행한 연구가 4편, 질적연구가 4편이었다. 치료기법과 방법론은 상담 실재와 성과와 밀접한 주제인만큼 이론에 치우친 개관연구보다는 상담 과정 및 성과연구에 더 중점을 둘 필요가 있고, 새로운 이론이나 프로그램을 통한 치료적 접근의 개발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두 번째가 원인 및 영향 요인으로(20.37%), 우울증의 원인, 발생기전 또는 현상을 다룬 연구의 특성상 전체 44편 중 양적연구가 23편으로 반 이상을 차지한다. 약 20% 정도가 이론연구였고 이론연구나 양적연구와 함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한 연구는 각각 4편이었다.

세 번째로 목회적(영혼) 돌봄이 16.67%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독교상담의 실천신학적 특성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기독교의 공동체적 특징과 돌봄의 특징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돌봄은 치료기법 및 방법론과 함께 갈 수 있는 것으로 공동체 자체가 가지는 치유적 힘을 생각할 때(이창규, 2017), 기독교상담의 독특성과 차별성을 보여주는 측면이라고 생각된다.

영성 및 종교성을 다룬 연구는 7.41%였는데, 영적 성장 및 성숙, 영적 안녕감, 하나님 이미지와 우울의 관계를 다루거나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불리는 영적 우울에 대한 연구들이 이에 해당한다. 국내 영성에 대한 연구 경향을 다룬 연구자들에 의하면 ‘영성’이 종합적인 개념을 다루는 주제이기에 학제간 연구의 성격을 띠는데, 연구자들마다 개념에 있어서 다양한 견해를 취하고 있어 공통적인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된다(김용환, 최금주, 김승돈, 2009; 정명숙, 2018). 특히 기독교상담에서 있어서는 서구 사회에서의 ‘영성’ 개념의 특성이 영성의 “내용”보다는 “기능”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된다(권수영, 2006: 251). 이는 현대에 와서 영성이 ‘종교성’으로서의 개념으로 이해되는 것과 연관되는데(권수영, 2004; 반신환, 2005; 유해룡, 2015), 이러한 경향은 기독교상담에서 우울증과 영성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들에서도 드러난다(박미하, 2014; 유지은, 2017). 즉, 신학과 종교심리학의 개념의 차이와 그로 인한 혼동이 있고 기독교상담 연구자들도 영성과 관련하여 일반 심리학적 개념과 도구들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어 기독교상담 안에서 보다 통합된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자살 관련 연구는 2.31%(5편)였는데, 자살의 가장 큰 위험인자가 우울증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부족한 감이 있다. 우울증은 모든 연령층에서 자살 생각과 관계가 깊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며(전현규, 심재문, 이진창, 2015), 10대의 경우 사망률 1위 원인이 자살이라는 점(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중년의 경우 연령대별 자살자 수가 가장 많다는 점(신경희, 2021), 노년의 경우 가장 높은 자살율을 보이는 연령층이라는 점(김정은 외, 2010) 등, 자살은 거의 모든 발달단계마다 관심을 기울여야 할 주제이다. 서론에서 언급했듯, 우울증 및 자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필요가 증가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돌보고 보존하는 것에 기독교상

답은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된다.

중독과 우울증을 다룬 연구는 0.93%(2편)으로, 일반상담에서 중독과 우울증을 함께 다룬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연구 동향을 보면 스마트폰 및 인터넷게임 중독과 우울증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우울이 스마트폰 중독의 가장 높은 예측인자로 보고되거나(이은주, 마예원, 2018), 인터넷 게임중독 고위험군의 경우에 우울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등(오윤선, 2008), 주로 양적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의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과 우울증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을 고려할 때, 다음 세대가 안고 있는 어려움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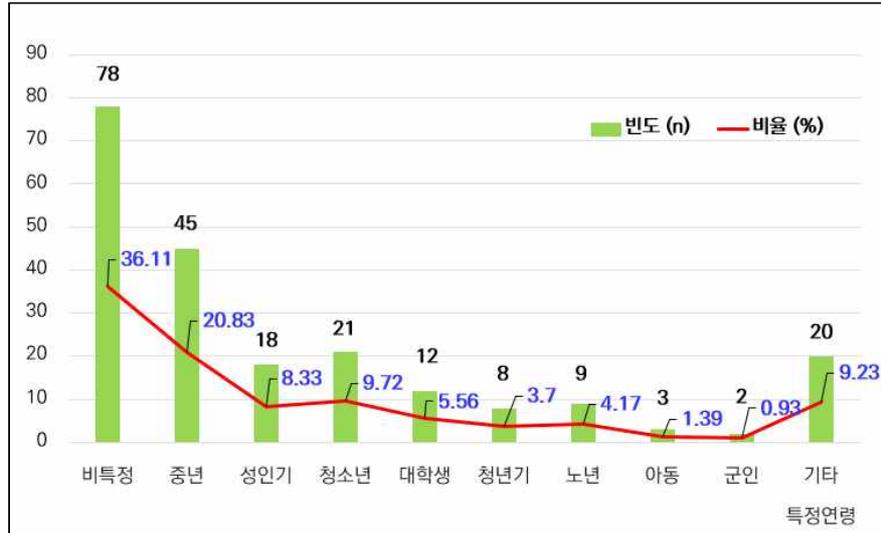
2) 연구 대상 분석 결과

(1) 발달단계 및 성별 연구 대상

우울증에 대한 기독교상담의 연령 및 성별 연구 대상 분석 결과는 (그림 4) 및 (그림 5)와 같다.

연구 대상의 발달단계별 분석 결과를 보면 연령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36.11%)를 제외하면 중년 연구가 가장 많고(20.83%), 그중에서도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18.98%를 차지하였다. 이는 일반적인 국내 중년 연구의 대상이 여성에 편중된 경향과도 일치한다(최희주, 김영근, 2017). 우울증에 취약한 중년여성의 특성으로 신체적으로 폐경기의 변화, 심리정서적으로 자녀의 독립과 가정에서의 역할변화로 인한 정체감의 위기를 경험하는 등 급속한 변화의 시기라는 점, 그 밖에 생활사건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요인들이 우울증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점 등이 제시되었다(김희선, 전요섭, 2014; 안순옥, 2013).

청소년 대상 연구(9.72%)는 대부분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최근 학교 밖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어(명소연, 조진옥, 2016) 이에 대한 관심 또한 필요하다. 학교 밖 청소년처럼 주류문화에서 소외된 대상, 즉 결혼 이민자, 이주 노동자, 탈북민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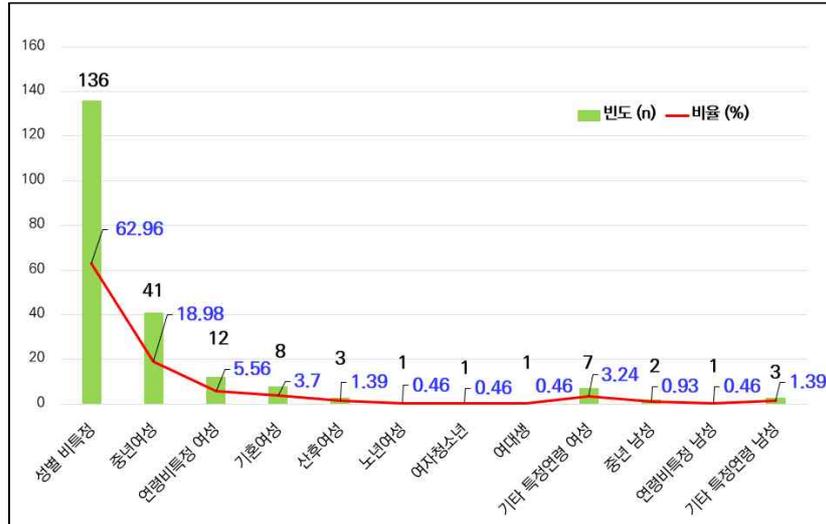
(그림 4) 발달단계별 연구대상 분석 결과

대학생 연구(5.56%)와 청년기 연구(3.7%)를 합하여 청년 연령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9.26% 적게 나타났는데, 여기에는 교회 안의 청년인구의 감소로 인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교회 내 청년 및 청소년 인구의 감소 현상은 우리나라 전체적인 종교인구 감소 현상의 결과일 수 있다(목회데이터연구소, 2023).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4.17%로 매우 적었는데, 한국교회 성도들의 상당수를 노인이 차지하는 상황에 직면한 현재 교회 내 노인을 위한 목회적 돌봄과 섬김의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노인 우울증 연구가 좀 더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한편, 발달단계별로 치료적 접근의 차이를 분석해 보았을 때 인생 주기상 과도기에 해당하는 청소년 및 청년 연령 연구 40편과 중년기의 연구 45편을 비교했을 때 연령별 치료접근이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별 연구 대상은 성별을 구분하지 않은 경우가 62.96%로 가장 많았고, 두 번째가 중년여성으로 18.98%, 세 번째가 연령을 명시하지 않은 여성으로 5.56%였다. 기혼 여성이 3.7%, 기타 특정 연령 여성이 3.24%로 비슷하고, 산후여성이 1.39%였으며, 여자 청소년, 여대생, 노년 여성이 각각 0.46%였다. 기타 특정 연령 여성 대상 연구는 주로 목회자 사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였다.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중년남성 0.93%, 기타 특정 연령 남성 1.39%, 연령을 명시하지 않은 남성 연구가 0.46%였다. 이중 기타 특정 연령 남성 대상은 2편의 군인 대상 연구와 1편의 남성 목회자 대상 연구였다(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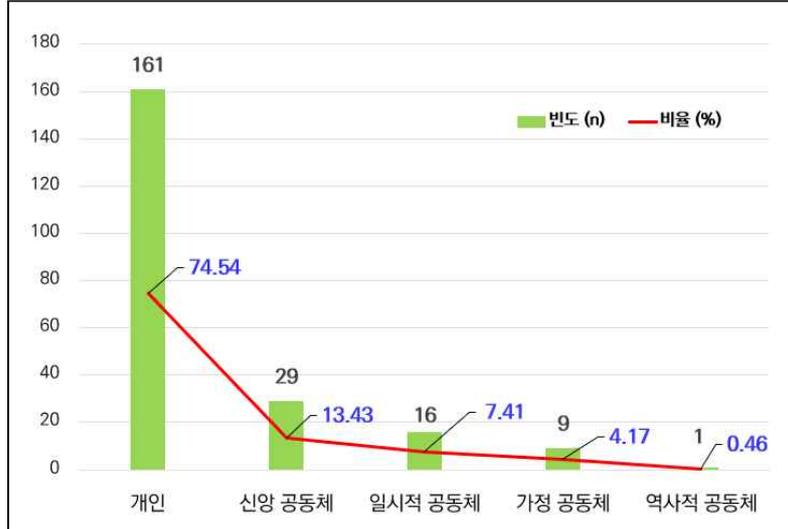


(그림 5) 성별 연구대상 분석 결과

216편의 전체 논문의 남녀 대상 비율을 보면 여성 대상 연구가 34.26%, 남성 대상 연구가 2.78%인데, 각각 74편과 6편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열두 배 이상의 비율을 보인다. 이는 남성과 여성의 유병률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남성 연구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남성 우울증의 유병률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현상(최정현, 2012) 및 남성의 우울증이 여성의 우울증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Hart, 2006) 이런 특성을 고려한 연구 접근이 필요하겠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우울증 유병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는 생물학적 요인으로 설명하기도 하지만(최경화, 2020), 본 연구에서 분석한 연구들 중에서 성과 관련된 좌절 경험이 여성의 우울증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다른 연구들이 있었다. 딸로 태어나서, 아내라서, 며느리라서, 엄마이기 때문에 겪는 사회문화적 불평등 구조 속에서 무력감을 경험하고(고양순, 2003) 고부갈등으로 인한 우울증을 경험하는 등(서종남, 2001; 2003), 여성이라는 사실 자체가 우울증에 취약한 요인이 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2) 공동체 및 종교별 연구 대상

우울증에 대한 기독교상담의 공동체 및 종교별 연구 대상 분석 결과는 (그림 6) 및 (그림 7)과 같다. 개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74.54%로 가장 많았고, 교회 공동체 및 목회자나 선교사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13.43%로 두 번째, 집단상담 또는 프로그램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구성된 공동체가 7.41%, 가정공동체가 4.17%로 확인되었다. 역사적 인물을 다룬 연구는 0.46%였다.



(그림 6) 공동체별 연구대상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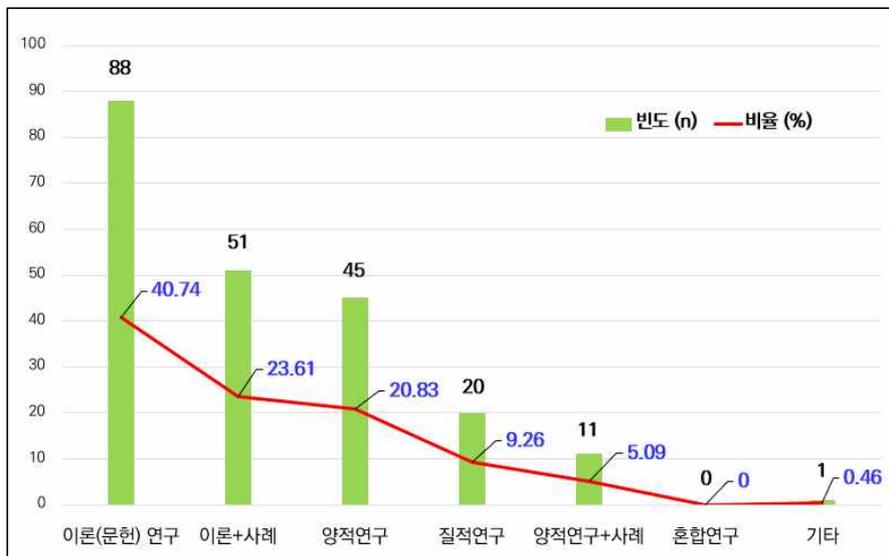
(그림 7) 종교별 연구대상 분석 결과

종교별 대상의 경우는 기독교상담의 특성상 기독교인이 압도적으로 많아 76.4%로 나타났다, 종교를 특정하지 않은 연구가 20.4%,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비교한 연구가 3.2%로 나타났다.

3) 연구 방법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상담 연구물들의 특징을 반영한 범주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이론(문헌) 연구가 88편으로 가장 많은 40.74%를 차지하였고, 이론과 함께 사례를 제시한 연구가 23.61%이었다. 경험연구 중 양적연구는 20.83%, 질적연구는 9.26%이었으며 양적연구를 시행하고 해당 사례를 제시한 연구가 5.09%이었다. 양적, 질적연구를 병행한 혼합연구는 확인되지 않았다(그림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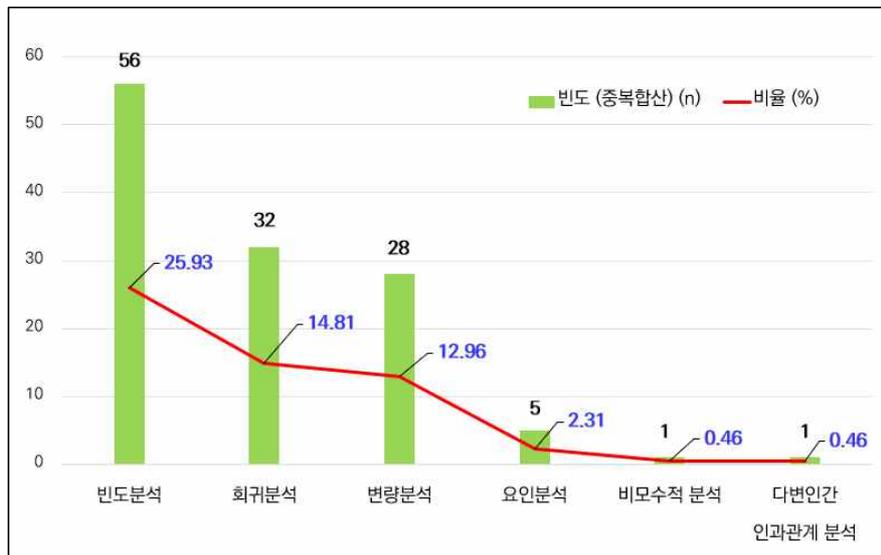


(그림 8) 연구방법 분석 결과

사례제시가 포함된 이론 연구들은(23.61%) 질적연구 방법론을 따르지 않은 연구들이어서 별도로 분류했는데, 해당 연구 51편을 연도별로 확인하면 전반 12년은 37편, 후반 12년은 14편으로 초기 연구들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질적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기 이전부터 상담이론과 현장을 연결하려는 노력이 꾸준히 있어왔음을 말해준다. 이런 형태의 연구는 2016년 이후 현저히 감소했는데, 질적연구 전체 20편 중 전반기에는 한편, 후반기에는 19편이 발표된 것과 연관이 있는듯하다. 즉, 사례에 대한 탐구가 초기의 단순한 방식에서 점차 경험을 깊이 탐색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적연구의 통계분석 방법은 다수의 연구에서 주로 SPS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2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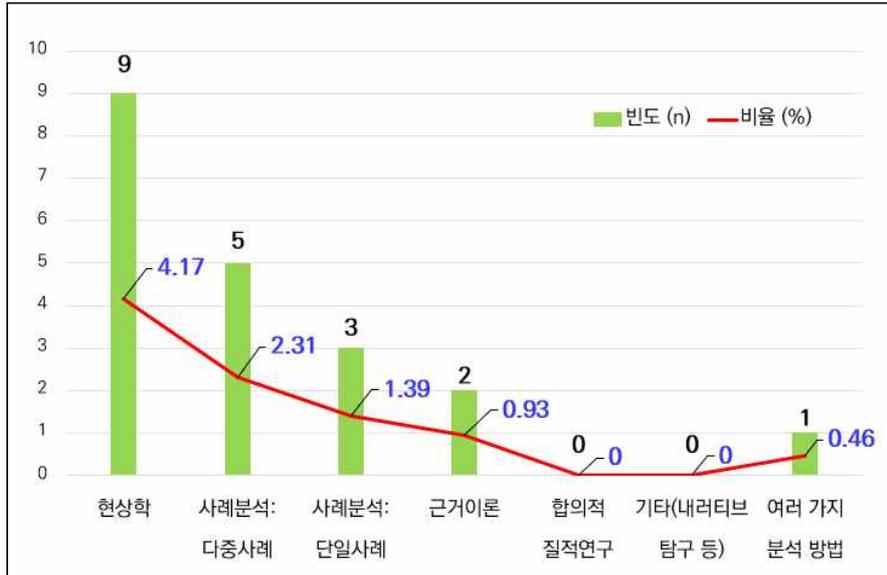
지 이상의 분석을 적용하였기에 중복되는 분석방법을 합산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양적 연구는 빈도분석을 포함하며(25.93%), 그다음으로 회귀분석(14.81%)과 변량분석(12.96%)을 가장 많이 시행하였다. 그밖에 요인분석을 시행한 연구가 2.31%, 비모수적분석과 다변인간 인과관계분석을 시행한 연구가 각각 0.46% 이었다(그림 9).



(그림 9) 양적연구 자료분석 방법 분석 결과

양적연구는 꾸준히 발표되었으며 연도별 경향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양적 연구는 실제 현장에서 상담에 적용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 분석한 양적연구 논문들을 토대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확인되지 않아 양적연구 결과를 치료적 개입에 적용하는 구체화 작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질적연구는 전체 20편 중 현상학 연구가 9편으로 가장 많았고, 다중사례분석이 5편, 단일사례분석이 3편, 근거이론이 2편이었으며 2가지 이상의 분석 방법을 적용한 연구는 1편이었다. 합의적 질적연구 및 기타 범주는 확인되지 않았다(그림 10).



(그림 10) 질적연구 자료분석 방법 분석 결과

질적연구 20편의 연구 주제를 확인하면 상담 과정 및 성과연구가 6편으로 가장 많았고, 이론개발과 성격특성 및 적응 연구가 각각 5편, 프로그램 개발연구가 2편, 기타가 2편이었다. 이는 일반상담에서 질적연구의 자료 분석 방법으로 근거이론, 합리적 질적연구(CQR), 현상학의 세 가지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된 것과 차이를 보인다(김봉환 외, 2012; 박승민, 2012). 좀 더 다양한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다차원적으로 경험을 관찰하고 해석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질적연구에서는 주관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연구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분석 대상 연구 20편 중 8편의 연구가 평가 기준과 평가 내용에 대해 분명히 밝히지 않아 질적연구의 수행과정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과정이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질적연구가 타당성을 확보하고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연구 절차와 과정에 대한 검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권경인, 양정연, 2013; 김봉환 외, 2012).

질적연구가 최근 몇 년간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양적연구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양적연구와 사례를 함께 제시한 연구가 11편으로, 양적연구 결과와 사례를 연결시키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었으나 질적 자료 분석에 해당되지 않아 혼합연구로 분류할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질적연구를 포함한 혼합연구를 통해 실증적인 탐구와 해석적 작업을 병행한다면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이론 및 치료적 접근 방법 분석 결과

(1) 이론적 접근

우울증에 대한 기독교상담의 이론적 접근의 경향 분석은 (그림 11)과 같다. 전체적인 경향을 보면 학제간 연구가 46.76%로 가장 많았고, 두 번째로 기독교적 논의가 거의 발견되지 않는 심리상담학적 접근이 26.85%로 나타났다. 신학적 접근은 25.93%로 심리상담학적 접근과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그림 11) 이론적 접근방법 분석 결과

학제간 연구 중에서는 심리학 중심 연구가 26.85%로 가장 많았고, 신학-성서중심 연구가 14.35%, 그 밖에 철학, 사회학 등을 포함한 학제간 연구가 5.56%였다. 신학적 연구 중에서는 목회적(영혼) 돌봄, 영성 신학, 하나님 이미지 등을 포함한 실천신학적 접근에 중점을 둔 목회신학적 연구가 18.52%로 가장 많았고, 여성주의 목회상담학적 연구가 5.09%, 성서-신학적 접근 연구가 2.31%로 나타났다.

기독교적 접근이 드러나지 않는 심리상담학적 연구 중에서는 인지행동 계열이 인지행동치료(5.56%)와 수용전념치료(0.46%)를 합해 6.02%로 가장 많았고, 정신분석 계열로는 대상관계와 애착 이론이 2.31%, 분석심리학/정신역동이 1.39%, 정신분석 계열의 통합이 0.93%, 고전적 정신분석과 자기심리학이 각각 0.46%로 나타나 총 5.55%

을 차지하였다. 인본주의 계열의 경우 긍정심리학이 1.85%, 경험주의가 1.39%, 실존주의 0.93%, 이야기 치료 0.46%를 차지하여 총 4.63%로 나타났다. 가족체계이론적 접근은 4.17%였고, 심리상담학적 접근이면서 이상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는 6.48%로 나타났다.

이론은 치료적 방법론이 나오게 하는 원리이자 기초를 이루는 것으로 기독교상담에 있어서 이론의 구축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일반상담과 달리 기독교상담은 신학적-성서적 관점에서 원리를 도출해내고 개념을 정립하며 치료를 위한 길을 만드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치료방법론 제시가 없는 이론 연구가 29.63%에 해당하는데, 연구 주제와 교차분석해 보면 주로 개관연구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지금까지 기독교상담의 학문적 노력이 있어왔던 것을 보여주지만, 기독교상담의 '정체성 확립기'의 시작점으로 보는 2000년(유상희, 2019; 유영권, 2010)에서 20여년이 지난 지금 학문적 정체성을 임상 현장에서 실체화하는 작업에 필요한 치료적 접근 연구가 더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론적 접근 중 학제간 연구가 46.76%로 가장 많은 것은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이라는 과제가 전제된 기독교상담의 성격을 말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세부 분석을 보면 학제간 연구 중 신학-성서 중심 관점과 신학적 접근을 합하면 40.28%, 학제간 연구 중 심리학 중심 접근과 기독교적 관점이 잘 드러나지 않는 심리상담학적 관점의 연구를 합하면 53.7%로 심리상담학적 관점에 좀 더 초점이 맞추어진 연구들이 신학적 관점이 중심이 된 접근보다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기독교상담의 학문적 정체성에 있어서 심리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2) 치료적 접근

치료적 접근 방법에 대한 분석 결과는 (그림 12)와 같다.

전체적으로 기독교(목회)상담적 접근이 30.56%, 통합 및 절충주의에 해당하는 접근이 31.02%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고 기독교적 접근이 발견되지 않는 심리상담학적 치료 접근도 6.94%를 보였다. 이론적 접근만 이루어지고 치료적 방법론 제시가 없는 연구는 29.63%로 나타났다. 양적연구의 경우 대부분이 치료적 접근에 대한 구체적 방법론 제시가 없었고 이론연구 중에서도 치료적 접근에 대한 제시가 보이지 않는 연구들이 있었다.



(그림 12) 치료적 접근방법 분석 결과

세부적으로는 기독교(목회)상담 중 단일 치료 접근으로 가장 많은 것이 성경적 상담 연구(10.19%)였고, 여성주의 목회상담이 3.7%, 영성 지도나 훈련을 다룬 연구가 3.24%, 인격요법이 1.85%, 진리요법과 성장상담 연구가 0.93%로 동일했다. 단일 치료 접근으로 분류되지 않은 '기타'가 9.72%였는데, 두 가지 이상의 치료 접근을 제시

하거나, 위의 범주로 분류할 수 없는 연구들이 포함되었다.

통합 및 절충주의에 해당하는 치료 접근으로는 인지행동치료 계열이 11.11%로 가장 많았고, 정신분석 계열이 3.24%로 두번째였으며, 이야기 치료/상담이 2.78%, 경험주의 계열이 2.31%, 가족치료 1.85%, 실존주의 0.93%, 긍정심리학 0.93%로 확인되었다.

심리상담학적 접근으로는 인지행동치료 계열이 2.78%, 정신분석이 1.39%였고, 다음으로 긍정심리학, 가족치료, 수용전념치료가 0.46%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심리상담학적 관점의 연구로 분류된 연구는 이론적 접근에서 26.85%, 치료적 접근에서 6.94%로 나타났는데, 이론에 비해 치료적 접근의 경우 심리상담학적 접근만 이루어진 경우가 훨씬 적은 것에 대해서는 이론적 통합에 비해 실제적 통합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고, 기독교상담의 실천신학적 차원이 적용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다.

치료적 접근에 있어서 통합 및 절충주의 분류는 기독교적 관점의 제시가 전체 논문에서 차지하는 분량에 관계없이 분석했기 때문에 통합 및 절충의 정도와 깊이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분석되지 않았지만, 기독교적 관점의 통합이 이론 및 치료 접근에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연구들도 상당수 포함되었다. 또한 ‘통합’과 ‘절충’ 자체는 서로 구분되는 개념이지만(Jones & Butman, 2009), 두 가지를 따로 구분하기에는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 사실상 통합 및 절충주의로 분류된 연구들 중 심리상담학적 관점에 치우친 경향을 보이는 연구들이 많았다. 이를 종합해볼 때 기독교상담의 이론 및 방법론적 적용에 있어서 기독교적 정체성을 뚜렷이 나타낼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III. 닫는 글

한국의 기독교상담은 지난 70여 년 동안 학문과 실천의 장 모두에서 성장과 발전을 거쳐 현재 정체성 확립과 확산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여겨진다. 기독교상담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고 미래를 위한 방향을 논의하고 제시한 연구들이 있으나 특정 세부 주제에 대한 연구 경향을 살펴본 연구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본 연구는 기독교상담 전반에 대한 것에서부터 범위를 좁혀 우울증에 초점을 맞춰 기독교상담에서 우울증 연구의 경향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지금까지의 흐름과 성과

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방향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0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의 국내 기독교상담 연구자들의 학술지 게재논문과 학위논문 216개를 연역적 및 귀납적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 주제, 연구 대상, 연구 방법, 이론 및 치료 접근을 중심으로 그 특징 및 경향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및 논의를 토대로 향후 연구의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기독교상담 우울증 연구가 좀 더 활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연도별 현황을 보면 최근 몇 년 간 연구가 감소하였는데, 서론에서 언급했듯 사회적 관심과 필요가 더욱 많아진 상황에서 우울증에 대한 학문적, 실천적 관심이 더 필요함을 생각해 보게 된다.

둘째, 연구주제에 있어서 이론과 현상에 집중된 경향에서 벗어나 좀 더 상담의 실천적 영역이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개관연구와 성격특성 및 적응 연구에 치중된 경향에서 벗어나 상담 과정 및 성과 연구가 더 활발해지고, 이론 개발과 프로그램 개발 및 진로연구에도 관심을 더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정 주제의 경우 영성 및 종교성에 대한 개념의 통합이 필요하며, 중독이나 자살 등 우울증과 밀접하게 연구되고 있는 주제들에 대해 주목하되, 각 주제와 관련하여 보다 효과적인 개입방법을 연결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무망감과 자살 사고의 위험성과 관련이 높은 우울증의 특성상 삶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개입과 그 효과성 연구, 중독과 우울이 병존할 경우 특히 청소년 및 청년 연령에서 학업 및 진로와 관계가 밀접하므로 이런 측면들을 연결하는 연구들이 필요하다 하겠다.

셋째, 연구 대상에 있어서 특정 대상에 치우친 경향에서 벗어나 다양한 대상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중년은 청소년과 청년 자녀, 노년의 부모님을 돌보며 가정과 사회를 떠받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체이기에 그 중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나, 지금까지 중년연구에 편중된 경향을 벗어나서 좀 더 폭넓은 대상에 맞는 치료접근에 대한 연구를 발전시키되, 각 발달단계별 과제와 우울증의 관련성에 대한 이해 및 분석, 그리고 이를 반영한 개입에 대한 고민이 대상별로 더 세분화되어 연구되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밖에 소외된 계층에 대한 연구 또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여성에 비해 관심이 부족한 남성 우울증에 대한 연구가 좀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겠다.

넷째, 연구 방법에 있어서 경험연구, 그 중에서도 특히 내담자를 직접 만나고 그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질적연구 및 혼합연구가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경험연구들의 경우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우울증에 대한 실제적 개입 방법을 개발하는 후속 연구들이 발표되지 않아 연구의 연

속성 면에서 아쉬움이 있었다. 예를 들어, 우울증에 미치는 영성의 영향에 대해 양적 연구를 통해 밝혀진 내용을(예: 유정순, 정현희, 2018) 실제 상담 과정에 적용하고 그 경험을 탐색하여 우울증 치료에 영적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연구하거나, 우울증 극복과정에 대한 질적 탐색(예: 윤상영, 2011; 최정현, 2012)의 결과를 상담 개입 과정에 적용해 보고 효과성을 확인하거나 하는 연구 등, 양적연구 및 질적연구 결과가 후속 연구를 통해 실제적 개입을 위한 상담 과정 개발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섯째, 기독교상담의 독특성을 보다 충분히 반영한 이론 및 실제 연구들이 발전될 필요가 있다. 이론 및 치료접근에 있어서 심리학적 이론 및 방법론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경향을 보여 많은 연구들이 일반 심리상담학적 이론에 대한 기독교적 평가와 재구성에 머무르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기독교상담만의 독자적인 이론 구축과 구체적인 방법론 개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논의는 기독교상담 전반의 동향 연구에서도 거론되었던 바로서(유상희, 2019; 장미혜, 정연득, 2017), 현재 시점의 기독교상담의 자리를 보여 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심리학에서 전제하는 세계관과 인간관에 대응하는 기독교적 세계관과 인간관에 기초하여 문제를 이해하고 접근하는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기독교상담에서 신학적 기반이 좀 더 견고하게 세워질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다른 모든 심리적 주제들과 마찬가지로 우울증 역시 하나님에 대한 이해, 인간 자신에 대한 이해, 주변 환경과 세상에 대한 이해와 해석 및 그에 대한 반응에서 오는 하나의 현상이다. 따라서 각 영역에 대한 숙고와 통찰에 있어서 신학과 기독교적 가치관에 기반한 탐구가 필요하다(안경승, 2023).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되었던 연구들 중 이러한 신학적 정체성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연구들이 훨씬 더 많았는데, 우울증에 대한 기독교상담에서 보다 깊이 있는 신학적 고찰 및 이를 토대로 한 종합적 이해와 분석, 그리고 개입을 위한 방안들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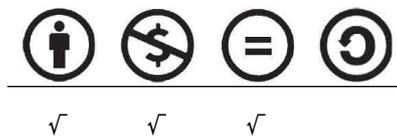
여섯째, 교회 공동체 돌봄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을 위한 연구들이 필요하다. 목회적(영혼) 돌봄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반영하고 발전시켜 교회 내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신자들뿐 아니라 그 가족들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 등이 개발된다면, 영혼돌봄을 위한 자원이 되고 더 나아가 교회 밖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일곱째, 이러한 노력을 위해서는 기독교상담의 현장에 대한 이해와 범교회적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13개 학술지 게재논문과 36개 대학 학위논문을

분석하였는데, 이는 지역교회와 기독교상담을 표방하는 기관, 학교와 학술단체, 목회자와 평신도 상담사역자 등 여러 주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고민하고 애쓰고 있는 국내 기독교상담의 현장을 보여준다. 이처럼 기독교상담 연구와 실천의 역량이 매우 다양한 현장에서 발휘되고 있으나 이제 이러한 역량을 집중하고 지원하는 체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지역교회들이 상담소를 개설하고 기독교상담자들이 상담 기관을 통해 기독교상담의 실천의 장을 넓혀가고 있는 이 시점에, 흩어져 있는 역량들을 모아 함께 할 수 있는 지역교회들을 아우르는 통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면 기독교상담의 정체성 확립 및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상담의 연구 동향을 분석함에 있어 국외 연구들과의 비교 또한 의미가 있는데(박경애, 백지은, 2017) 본 연구에서는 우울증에 대한 국외 기독교상담 연구들과의 공통점과 차이점 등을 비교 분석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추후 국외 기독교상담의 연구 경향까지 함께 살펴보고 국내 연구의 발전을 위한 통찰을 얻을 수 있길 기대한다. 각 분석 항목별로 세부적인 측면에서 논의하였으나, 분량의 한계로 인해 모든 항목들에 대한 분석내용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우울증에 대한 기독교상담의 기존 연구들의 경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제공함으로써 앞으로의 연구의 방향에 대한 고민을 통해 학문적, 임상적으로 더욱 발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논문 투고일: 2024년 01월 08일
- 논문 수정일: 2024년 03월 01일
- 게재 확정일: 2024년 03월 09일



【참고문헌】

- 강연정 (2019). 기독교 상담의 통합적 원리와 특징. **복음과 상담**, 27(2), 7-33.
<https://dx.doi.org/10.17841/jocag.2019.27.2.7>
- 고양순 (2003). 여성 우울증 임상 이야기. **목회와 상담**, 10, 117-153.
- 권경인, 양정연 (2013). 상담학 분야의 질적연구 동향 분석(2000년~2012년). **상담학 연구**, 14(6), 3871-3893. <https://dx.doi.org/10.15703/kjc.14.6.201312.3871>
- 권수영 (2004). 임상 현장의 작용적 신학: 기독교상담의 방법론적 정체성. **한국기독교 상담학회지**, 7, 100-123.
- 권수영 (2006). 기독(목회)상담에서의 영성 이해. **한국기독교신학논총**, 46(1), 251-275.
- 권수영, 손운산, 안석모, 이상역, 정희성 (2007). 한국교회 목회적 돌봄과 상담의 자취와 전망. **한국기독교신학논총**, 50, 215-248.
- 김계원, 정종진, 권희영, 이운주, 김춘경 (2011). 상담심리학의 최근 연구동향 : 상담 및 심리치료학회지 게재논문 분석(2000~2009).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3), 521-542.
- 김봉환, 배주연, 오효정, 윤영선, 제갈원 (2012). 상담 분야의 질적연구 동향 분석 (2002년~2011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3), 729-752.
- 김성연, 박효은, 이보라, 이동훈 (2023). 코로나 대유행 시기 자살사고 유병률과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9(3), 405-427.
<https://dx.doi.org/10.20406./kjcs.2023.8.29.3.405>
- 김성희 (2002). 기독교상담 연구의 내용분석 (1990-2001년까지의 석사학위 논문). 전주대학교 국제상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영희 (2007). 크리스천의 우울증에 대한 이해와 치유: God-images를 중심으로 한 목회상담적 접근. **복음과 상담**, 9, 31-67.
- 김용환, 최금주, 김승돈 (2009). 한국에서의 영성 관련 연구 동향 분석 및 학문적 합의. **상담학연구**, 10, 813-829. <https://dx.doi.org/10.15703/kjc.10.2.200906.813>
- 김정은, 신동환, 윤성욱, 백준형, 전동욱, 문정준, 이봉주, 김영훈 (2010). 60세 이상 노인 인구에서 우울증과 자살의 위험인자. **생물치료정신의학**, 16(1), 46-53.

- 김준 (2014). 칼빈주의 설교가 찰스 스펔전의 우울증: 그의 대처방식과 기독교상담에의 함축성. **개혁논총**, 31, 187-215.
- 김희선, 전요섭 (2014). 기독교 중년여성의 생활사건 스트레스가 영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우울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복음과 상담**, 22(2), 153-183. <https://dx.doi.org/10.17841/jocag.2014.22.2.153>
- 노안영 (1994). 상담심리학의 최근 동향. **학생생활연구**, 26, 99-113.
- 명소연, 조진욱 (2016). 학교밖 청소년의 학교 이탈과 이후 삶의 도전과 성장에 관한 질적연구: 학교밖 지원사업에 참여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상담연구**, 24(2), 75-98. <https://dx.doi.org/10.35151/kyci.2016.24.2.005>
- 박경애, 백지은 (2017). 상담심리학 연구 동향: 상담 및 심리치료학회지 게재논문(2012~2016) 분석 및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게재논문과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4), 893-913. <https://dx.doi.org/10.23844/kjcp.2017.11.29.4.893>
- 박근원 (1997). 한국 목회상담의 역사 개요. **신학사상**, 97, 28-35.
- 박미하 (2014). 기독교인의 종교 성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연구: 자존감의 매개효과. **신앙과 학문**, 19(1), 77-96. <https://dx.doi.org/10.30806/fs.19.1.201403.77>
- 박승민 (2012). 상담학 분야의 질적연구 경향 분석 :국내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3(2). 953-977. <https://dx.doi.org/10.15703/kjc.13.2.201204.953>
- 반신환 (2005). 우울증에 대한 기독교 상담: 우울증과 종교성의 관계에 대한 분석에 근거해서.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10, 35-51.
- 서종남 (2001). 한국 여성의 우울증에 대한 구조적 가족치료의 적용.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3, 51-94.
- 서종남 (2003). 고부갈등이 빚어낸 시모의 우울증 심리치료.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6, 100-14.
- 석민경, 조한익 (2017). 청년 미취업자의 우울, 진로 자기효능감과 취업 후 직무만족도와의 관계 검증: 남녀간 다집단 분석. **진로교육연구**, 30(1), 243-267. <https://dx.doi.org/10.32341/JCER.2017.03.30.1.243>
- 손운산 (2011). 한국 목회돌봄과 목회상담의 역사와 과제. **목회와 상담**, 17, 7-39. <https://dx.doi.org/10.23905/kspcc.17..201111.001>

- 신경희 (2021). 우울증 감소에 독서치료가 미치는 영향. **독서치료연구** 13(2), 81-113.
<https://dx.doi.org/10.35398/job.2021.13.2.81>
- 심윤경 (2016). 상담에서의 mindfulness 치료 과정변인 연구 동향 및 제언: 수용전념 치료 중심으로. **명상심리상담**, 15, 1-10.
- 안경승 (2012). 복음주의 기독교상담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복음과 상담** 19, 188-216.
- 안경승 (2023). 기독교상담에서 신학복원을 위한 제언. **복음과 상담**, 31(3), 131-155.
<http://dx.doi.org/10.17841/jocag.2023.31.3.131>
- 안순옥 (2013). 중년여성 우울증에 대한 여성주의 목회상담: 이야기치료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여한구 (2014). 우울에 대한 상담목회적 이해. **국제신학**, 16, 207-232.
- 오윤선 (2008).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중독이 우울, 공격성,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시설환경**, 6(4), 3-15.
- 오은경 (2014). 학교밖 청소년 유형별 사회적 지지, 진로 준비 행동, 사회적 배제 및 우울 간의 차이. **청소년시설환경**, 12(2), 65-80.
- 유상희 (2019). 한국 기독(목회)상담의 역사와 연구 동향.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30(1), 245-272. <https://dx.doi.org/10.23909/KJCC.2019.02.30.1.245>
- 유영권 (2010). 한국 기독(목회)상담학의 역사와 전망. **신학논단**, 60, 93-111.
- 유정순, 정현희 (2018). 가족기능과 대학생 우울과의 관계에서 자존감과 영성의 조절 효과.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9(1), 95-118.
- 유지은 (2017). 기독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우울에 관한 연구. **신학논단**, 87, 237-264. <https://dx.doi.org/10.17301/tf.2017.87..009>
- 유혜룡 (2015). 한국적 상황에서의 영성의 연구 동향. **신학과 실천**, 47, 177-206.
- 윤상영 (2011). 대학생의 우울극복 과정 연구: 타인의존성에 벗어나 자기인생 경로 만 들어가기. 백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동혁, 유성경 (2000). 상담연구의 주제 및 연구 대상 분석: 학위논문 및 학회지 논문을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8, 37-58.
- 이윤주, 최용용 (2018).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속박감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취업진로연구**, 10(2), 111-128. <https://dx.doi.org/10.35273/jec.2020.10.2.006>
- 이은주, 마예원 (2018). 여고생의 스마트폰 중독, 수면시간 및 우울간의 관계. **예술인**

- 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8(4), 533-542. <https://dx.doi.org/10.35873/ajmahs.2018.8.4.048>
- 이용준, 김승재 (2023). Prevalence and related factors of depression before and during the COVID-19 pandemic: Findings from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38(10), 1-13.
- 이정숙 (2010). 기독교상담의 최근 연구 동향 분석. 고신대학교기독교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창규 (2017). 사별의 슬픔에 대한 현상학적 이해와 신앙공동체를 통한 목회 돌봄과 상담: 크리스천 사별 여성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학과 실천**, 53, 305-336.
- 이창진, 오은주 (2015). 우울이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영성의 매개효과.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6(1), 83-112.
- 장미혜, 정연득 (2017). 목회상담학의 최근 연구동향: 「목회와 상담」 게재논문 분석 (2001-2016). **목회와상담**, 28, 269-299. <https://dx.doi.org/10.23905/kspcc.28..201705.010>
- 전현규, 심재문, 이진창 (2015). 국내성인에 있어서 우울증이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 국민건강영양조사 2008~2012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7), 264-281. <https://dx.doi.org/10.5392/JKCA.2015.15.07.264>
- 정명숙 (2018). 국내 영성 연구의 동향 :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와 프로그램의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7(3), 385-409. <https://dx.doi.org/10.22257/kjp.2018.09.37.3.385>
- 조남정, 최은미, 최희진, 장선철 (2010). 상담학의 연구 동향 분석: 「상담학연구」 학회지 게재논문(창간년도~2009), **상담학 연구**, 11(2), 507-524. <https://dx.doi.org/10.15703/kjc.11.2.201006.507>
- 조성호 (2003). 상담심리학 연구 동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4), 811-832.
- 조준희 (2004). 집단인지치료 기법을 중심으로 한 한국교회 여성의 우울증 치료. 아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주은선, 김혜원 (2013). 인간중심접근(Person-centered Approach) 관련 국내 연구의 내용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2(2), 351-372.

- 차유림 (2016). 사별을 경험한 이들을 위한 목회상담에 관한 연구 동향 분석. **신학과 사회**, 30(2), 219-244. <https://dx.doi.org/10.22748/thesoc.2016.30.2007>
- 최경화 (2020). 여성의 우울에 관한 국내 음악치료 연구 동향: 2000년-2018년. **인문 사회** 21, 11(1), 463-478. <https://dx.doi.org/10.22143/HSS21.11.1.35>
- 최윤형 (2010). 중년기 그리스도인의 우울증 치유를 위한 성경적 상담 사례연구. 홍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은영 (2000). 기독교 상담학 연구 : 연구주제 및 연구방법.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12, 65-79.
- 최정현 (2012). 남성 우울 극복과정과 비판적-구성적 성찰.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3(3), 281-321.
- 최지영 (2012). 대학생의 영적 안녕, 우울이 자살 사고에 미치는 영향 : 기독교 집단과 무교 집단의 비교.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3(1), 237-262.
- 최희주, 김영근 (2017). 상담 및 심리 분야의 중년연구 동향 분석. **재활심리연구**, 24(3), 519-539.
- 홍인중 (2012). 한국 장로교 100년: 목회상담의 회고와 전망. **장신논단**, 44(2), 75-104. <https://dx.doi.org/10.15757/kpjt.2012.44.2.003>
- Buboltz, W. C. Jr., Miller, M., & Williams, D. J. (1999). Content analysis of research in th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1973-1998).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6, 496-503.
- Hart, A. D. (2006). **남성 우울증**(조현주, 현명호, 김정미 공역, *Unmasking male depression*). 서울: 학지사. (원전 2001 출판).
- Johnson, E. L. (2012). **심리학과 기독교 어떤 관계인가**(김찬영 역, *Psychology & Christianity: Five views*). 서울: 부흥과 개혁사. (원전 2010 출판).
- Jones, S. L., & Butman, R. (2009). **현대 심리치료와 기독교적 평가**(이관직 역, *Modern psychotherapies: A comprehensive Christian appraisal*) 서울: 대서. (원전 1991 출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도자료.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A020041000100&brdScnBltno=4&brdBltno=10627&pageIndex=1#none>에서 2023년 8월 25일 인출.
- 국가통계포털 (2022. 2. 25.).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920023에서 2023년 8월 5일 인출.

- 목회데이터연구소 (2023. 9. 5.). http://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gugnae&wr_id=94에서 2023년 9월 12일 인출.
- 보건복지부 (2022. 9. 27.). 2021년 자살사망자 1만 3,352명, 지난해 대비 소폭 증가.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73035&page=1에서 2023년 9월 17일 인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3. 25.). 연령표준화 사망률(자살). <https://www.kihasa.re.kr/news/card/view?seq=42733>에서 2023년 9월 17일 인출.

[Abstract]

Research trends in Christian Counseling for Depression: Focusing on Domestic Research

Kwon, Hye Ryoung* Suk, Eun Joo** Kim, Suk Kyeong***

This study aims to predict the direction of future research by analyzing research trends on depression in Christian counseling. For this, the study analyzed 216 academic journals and dissertations published by domestic Christian counseling researchers on depression. The analysis items were broadly divided into the areas of research topic, research object, research method, theoretical and therapeutic approach, and the characteristics and trends were analyzed. Considering the focus on depression and the specificity of Christian counseling, which is distinct from secular counseling, the categories were organized using both deductive and inductive method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most common research topics were overview studies, and the most common were studies that did not specify age and gender, studies targeting individuals, and studies targeting Christians as subjects. The most common research method was theoretical research, the most common theoretical approach was interdisciplinary research, and the proportion of Christian counseling and integrative and eclectic approaches was alike in therapeutic approaches. In terms of content, the proportion of psychological counseling perspectives was higher. Based on this, the tasks and directions of future research on Christian counseling for depression were proposed.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be used as important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Christian counseling for depression in the future.

Key words: depression, Christian counseling, counseling research trends, content analysis, identity of Christian counseling

* Yullin Counseling Center / Researcher

** Yullin Counseling Center / Researcher

*** Yullin Counseling Center / Researcher